



파리 주 드 폼 미술관의

“THE SUPERMARKET OF IMAGES” 전시를 후원하는

예거 르쿨트르

2006년부터 파리 주 드 폼(Jeu de Paume) 미술관의 특별 파트너로 활약해온 예거 르쿨트르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이미지 경제 또는 ‘아이코노미(iconomy)’를 주제로 한 “The Supermarket of Images”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이미지와 사진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독창적인 공간인 주 드 폼은 시각 문화 연구의 장벽을 다시 한번 넘어섭니다. 탁월한 재능을 갖춘 예술가 단체는 예거 르쿨트르의 지원으로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이미지의 과잉 생산에 맞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성찰합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시대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한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협업

예거 르쿨트르는 주 드 폼 미술관과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예술적 도약에 동참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he Supermarket of Images 전시는 현대 세계에서 이미지가 확산 및 거래되는 방식, 이미지의 제작에 들어가는 인간의 노력(또는 기계적 프로세스), 이러한 이미지들이 전 세계에 유포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치의 변화와 같이 새로 등장한 “아이코노미”로 인한 문제를 관객들이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의 관점으로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 드 폼은 예술가 단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묘한 차이와 침예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창립 이후부터 공동 작업 및 제작, 혁신을 추구해온 예거 르쿨트르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고유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매뉴팩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킹과 마찬가지로 사진 역시 장소의 분위기를 뜻하는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의 공유

2006 년, 예거 르쿨트르와 주 드 폼 미술관의 만남은 서로에게 있어 본질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지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833 년부터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모여 작업을 함께합니다. 공유와 전달의 장소인 매뉴팩처는 상호 신뢰를 통해 독특한 스타일을 특징짓는 소속감을 선사하며 정교함과 기술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전시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워크숍 및 공연을 주최하는 주 드 폼 미술관은 융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진은 혁신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한계를 뛰어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리와 발레 드 주에서 얻은 영감에는 존중의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정지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거-르쿨트르는 시계의 목적으로만 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는 표현으로 시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닌 주 드 폼과 그랑 메종은 계속해서 긴밀한 유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1833 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평온한 발레 드 주의 전원 지역에 자리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예거 르쿨트르라 불리는 그랑 메종에서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끊임없는 에너지와 창의적인 협동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